

# 한나라 '비주류의 반란'

## 원내대표 황우여·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 선출

### “색신없인 내년 총선 공멸” 위기감 친이계 이탈 분석

한나라당의 지난 6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예상을 뒤집고 비주류인 4선의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 3선인 이주영(경남 마산합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재직의원 172명 가운데 해의출장 등으로 인한 불참자를 제외한 출석의원 157명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90표를 획득,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황 의원과 함께 결선에 오른 안경률 의원은 64표를 얻는데 그쳤다. 무효는 3표였다. 앞서 황 의원은 159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64표를 얻어 1위에 올랐으나 과반 80표 득표에 실패, 58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안 의원과 결선투표를 치렀다. “당 화합”을 내세우며 출마한 이병석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지만 33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제18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황우여·이주영 의원이 당선된 것은 친박(친박근혜)계 및 소장파 의원들이 불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친이 주류를 대표해 결선투표에 나선 안경률 의원은 64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기존 100명에 육박하던 친이계 중에서 30여명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이계를 양분

에게 표를 던진 것은 ‘색신 없으면 내년 총선서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현 권력직층은 ▲안경률 의원을 지지한 60여명의 이재오계 ▲60명에 달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친이 일부가 가세한 소장·중립그룹이 “3분”한 모양새다. 이 중 친박계와 소장·중립그룹의 연대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확인됐고,

여기에 ‘색신 대상’으로 분류될 꺼리는 이상득계가 친박계와 전략적으로 제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류 편에서 주류가 다른 그룹에 포위되면서 정치적으로 위축되는 반면, ‘미래권력’으로 불리는 친박계가 색신그룹과의 연대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며 부상할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나경원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중구 약수역 일대에서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민생현안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비대위 구성 내용 조짐

## 당 지도부 문제 제기...비대위원장에 정의화 의원



한나라당이 지난 7월 4·27 재보선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정의화(사진)국회 부의장을 선임했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 비대위 구성과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내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환 대변인은 8일 전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안상수 대표 주재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이뤄진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친이(친이명박)계이면서도 계파색이 얇은 중진 의원이다. 또 비대위원으로는 3선의 김성주·김학송·원유철 의원, 원외의 박순자·차명진 의원, 초선의 김성동·김성식·신영수·윤진식 의원, 원외의 정영호·담형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계파별로 분류하면 범친이계는 정위원장을 비롯해 원유철 박순자 차명진 신영수 윤진식 의원과 정영화 위

원장 등 7명, 친박계는 김성주 김학송 김성동 의원 등 3명, 중립그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식 의원 등 3명이다. 다만 범친이계 중에서 원유철 차명진 의원은 여러 조합인 김홍수 경까지지, 신영수 의원은 정몽준 전 대표와 각각 가깝다.

비대위의 업무는 ‘최고위원회의의 통상업무 및 전당대회 준비 관련 업무’로 정해졌지만, 재보선 패배 이후 혁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의 개혁·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당은 비상 상황”이라

며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여기서 당의 색신 논의를 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장파를 중심으로 안 대표가 제안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원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등 강한 견제를 시작했다.

또 한 대표가 친명파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서 일부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표가 그만둔다고 최고위원까지 그만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나아가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전대 준비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대표가 사퇴한 만큼 황우여 신임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6월말~7월 초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대 관련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도 여권發 쇄신바람 부나

## 원내대표 경선 ‘좌클릭’ 선호...유선호 의원 유리 관측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한나라당 발(發) 쇄신바람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주류 원내대표를 전면내세우려는 변화를 선택한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야권 연대 문제와 한나라당의 쇄신바람이 맞물리면서 이념적으로 당의 좌(左) 클릭을 이끌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가 커질 것이라 관측이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봉균·김진표·유선호 의원 등 3명의 후보 중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유 의원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김 의원은 관료 출신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보다 이념적으로 오른 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의 한 초선 의원은 8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은 민주당에 색신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약하다는 이미지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과 승리한 민주당은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친박계의 선택이 한나라당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수 있게 손쉬운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당 대선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강 의원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중도성향의 한 의원은 “노선보다는 정책으로 경쟁할 인물을 통해 차기 총·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중도성 공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과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이 ‘윤리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첫 의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가 지난 6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끝에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해 전제회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제명안이 앞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게 되면 강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 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면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명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특히 오는 25일 나오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제명안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용석 의원 ‘윤리문제’ 의원직 박탈 1호 되나

## 윤리위 소위 ‘제명안’ 통과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해 전제회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제명안이 앞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게 되면 강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 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면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명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특히 오는 25일 나오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제명안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광양만권 국회의원 ‘공동발전협’ 구성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광양만 권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성곤(여수 갑)·주승용(여수 을)·유운근(광양)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선동(순천) 의원 등 4명의 광양만 권 지역구 의원은 지난 6일 순천시내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의원들은 3개 도시의 시장, 시의회의장, 상공회의소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협력하고, 세 도시의 갈등 해소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며, 세 도시의 행정협의회와 활성화 촉구를 위해 4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주요 현안인 여수 세계박람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광양항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국회의원 간 모임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 민중당 어버이날 공휴일 제정 추진

민중당은 8일 어버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하고,

#### 김경호 의원 ‘제명안’ 의원직 박탈 1호 되나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과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이 ‘윤리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첫 의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가 지난 6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끝에

####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 다핵화 시대를 맞아 국가가 책임지는 효(孝)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어버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쉬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한편 2028년까지 기초 노령연금 수급 대상과 금액을 노인인구의 80%와 월 18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순용씨, 민주당 복당 추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야권연대 방침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순용 후보가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조순용 후보가 며칠 전 복당을 신청했다”라며 “탈당한 뒤 복당 신청이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 심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현대공인중개사

#### 토지 매매

- ▶지연복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이용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문주택, 연수일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저수지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준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축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산간도로변, 지하철거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습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습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인력10실, 투룸3실, 쓰리룸3실, 4층 본인 거주 보습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방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판공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 토 지 매 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년 공원사거리)

###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포중앙병원

▶대지 7867평  
▶건물 2510평  
▶감정가액 126억원  
▶매매가액 80억원(협의후결정)

순천시 바이오디젤공장

▶대지 2537평  
▶건물 333평  
▶감정가액 41억원  
▶매매가액 24억원(협의후결정)

광주블루동 그린드 호텔

▶대지 683평  
▶건물 2148평(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액 80억원  
▶매매가액 50억원(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대지 10000평  
▶건물 1976평  
▶감정가액 99억4천  
▶매매가액 55억(협의후결정)

해남 방갈랜드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감정가액 83억원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전주 노승병원

▶대지 548평  
▶건물 2209평  
▶감정가액 75억원(지하3층 지상8층)  
▶매매가액 40억원(협의후결정)

\* 유동화 자산매각은 유동회사 유입부동산이나 경제민생인 물건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전화상담 ☎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시/읍/면/동	소재지	면적	대지면적	평가	최가	비고	소재지	면적	대지면적	평가	최가	비고	소재지	면적	대지면적	평가	최가	비고		
전남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전남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전남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광양	대취마을	142	157	1억5천	1억1천	신용

민중당 어버이날 공휴일 제정 추진

김경호 의원 ‘윤리문제’ 의원직 박탈 1호 되나

조순용씨, 민주당 복당 추진

병원, 교차, 사옥, 모델,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 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7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문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